

2020 MARCH | vol.1

# MEGA DREAM



## 자연계열,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의 재수성공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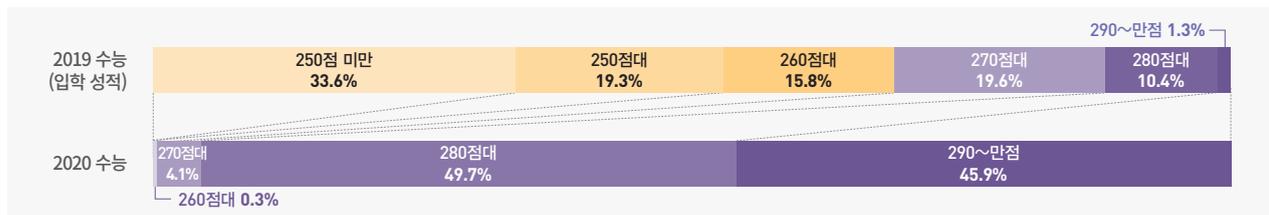
*메가스터디학원과 함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재도전을 결정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또 목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많은 재수생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메가스터디학원에서 재수성공을 이뤄낸 수험생들의 결과를 본다면 성적 상승에 대한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 고3 때 IN 서울권 대학 합격도 어려웠지만 재도전 후 최상위권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한 수험생들의 결과를 통해 지금 이 시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값진 순간인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하루하루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고 이겨낸다면 1년 뒤 나의 사례가 이곳에 성공신화로 기록될 것이다.

**SKY + 의예 · 치의예 · 한의예 · 수의예 합격** | 2020학년도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 정시 합격자 백분위 성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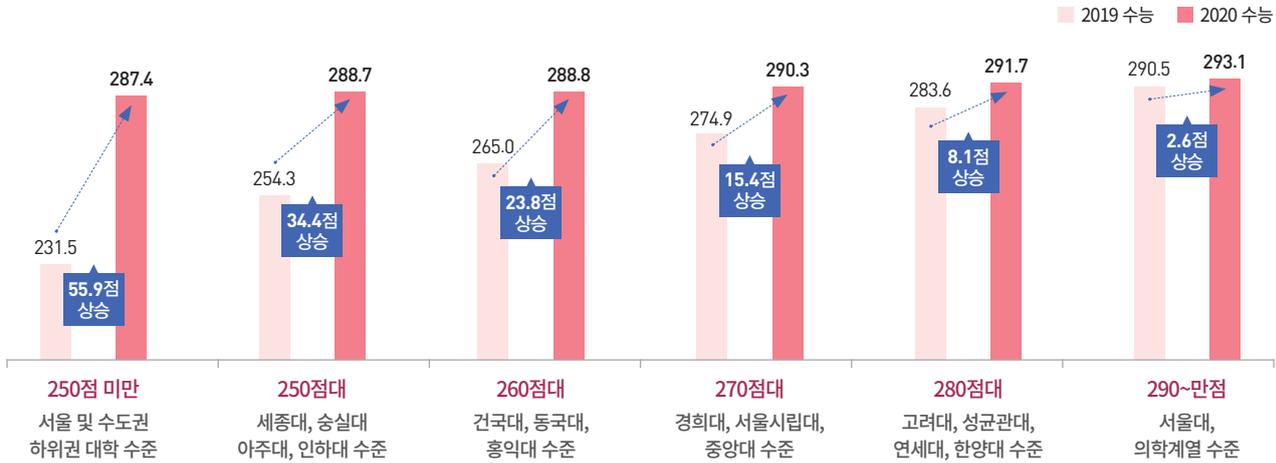
### 1 점수대별 분포

자연계 최상위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재수를 시작했을 당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백분위 성적 250점 미만인 수험생들이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재정반 입학 당시 2019 수능으로 서울 및 수도권 하위권 대학 진학 수준의 학생이 재수 이후 SKY뿐만 아니라 의·학계열 합격까지 가능한 성적대로 올라선 것이다. 250점대의 학생도 19.3%나 됐는데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대부분 2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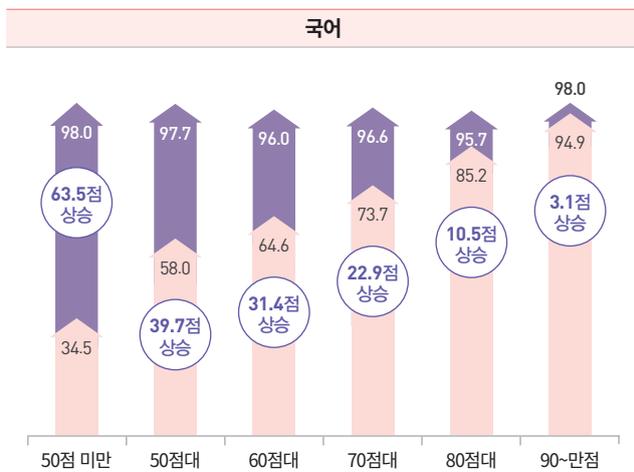
## 2 평균 점수 상승폭 :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재정부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 상승폭을 살펴보면 현재 자신의 가능성과 앞으로 몇 점 정도를 올려야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최상위권 대학 합격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250점 미만 수험생들은 무려 55.9점이나 상승하여 국수탐(2) 합 평균 287.4점을 기록했다. 서울 중위권 대학 합격 수준인 250점대 수험생들은 34.4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작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점수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출발점이 어디든 목표는 290점 이상으로 두고 앞으로의 성적을 관리해 나간다면 1년 뒤 희망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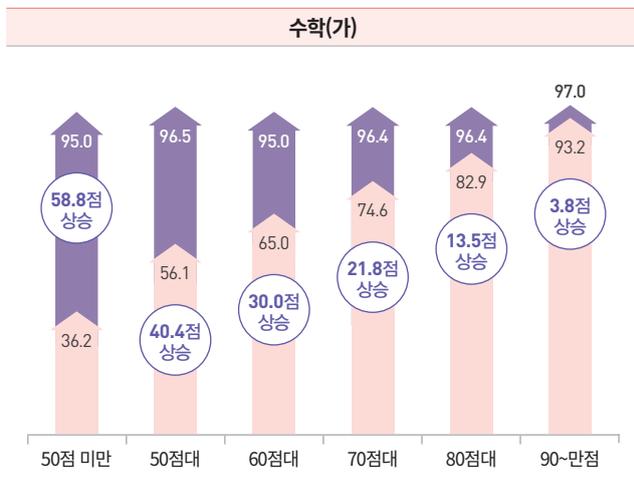
## 3 영역별 점수 상승폭 : 국어, 수학(가), 과탐(2)

2019 수능 2020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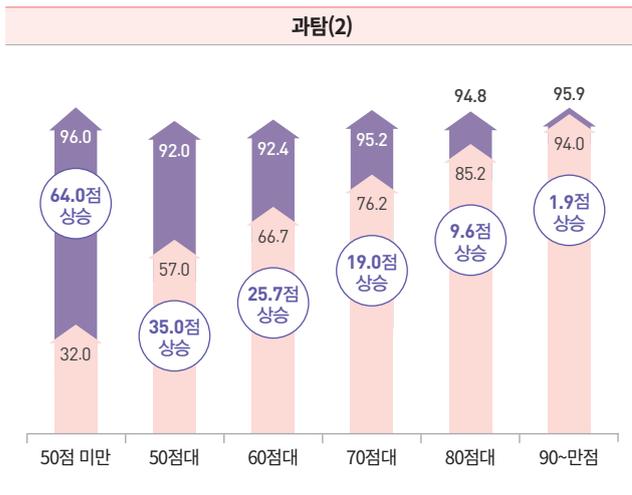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재정부 수험생들의 수능 영역별 점수 상승폭을 살펴보면 국어에서 2019 수능 성적이 50점 미만인 수험생들의 성적이 90~만점을 받은 수험생들과 동일하게 2020 수능에서 평균 98점을 기록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국어는 성적을 올리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인데 재수를 통해 국어 성적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어는 1교시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수험생도 긴장을 많이 한다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재수생들은 수능 시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꾸준히 키우며 실력을 쌓아나간다면 충분히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학 또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연계는 정시모집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 인해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성공한 수험생들 중 다수가 수학에서 크게 성적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현재 수학 성적이 낮은 자연계 수험생이라면 개념부터 꼼꼼하게 잡아나가며 성적 향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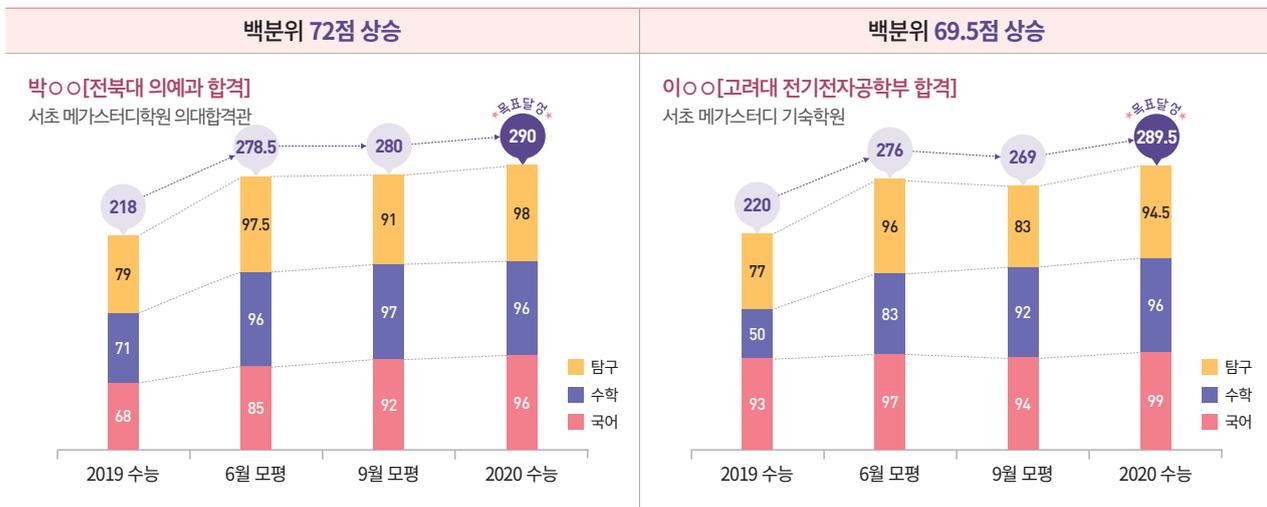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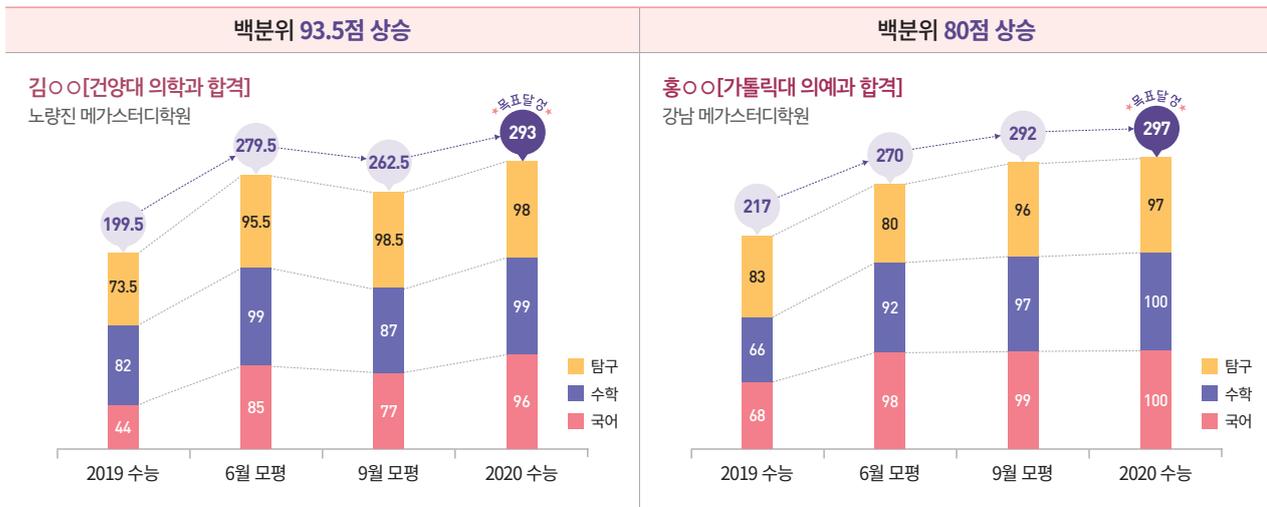


과학탐구 성적의 특징은 입학 성적(2019 수능)이 50점 미만으로 가장 낮았던 수험생들의 성적이 2020 수능에서는 평균 96.0점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탐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성적을 올리기가 쉬운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성적이 떨어지기도 쉬운 영역이다. 따라서 6월 모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히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를 해나가야 희망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상승폭이 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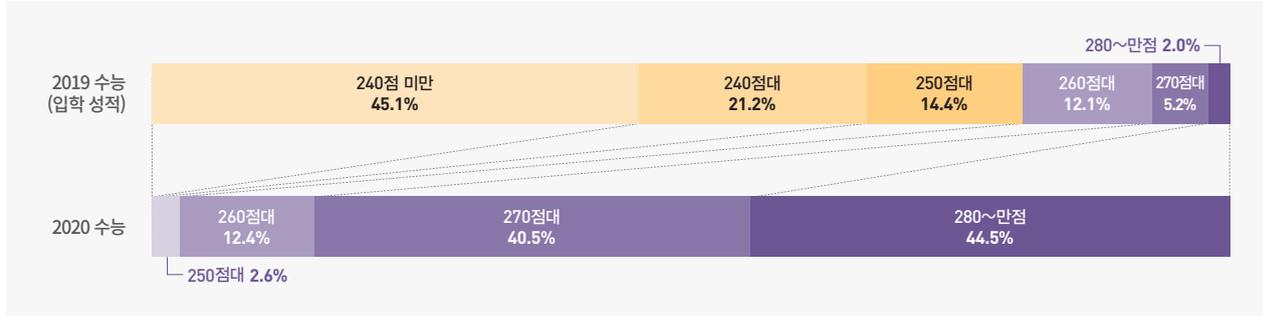
성적이 크게 향상된 수험생들의 점수를 살펴보면 국수탐(2) 백분위 합이 2019 수능 대비 93.5점 상승한 사례가 있다. 특별한 수험생의 사례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에는 자신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성적 향상을 크게 한 수험생의 대부분은 6월 모평에서 성적이 크게 오른다. 따라서 2021 수능에 앞서 6월 모평에서 비약적인 성적 향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매달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몇 점씩 올라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적이 꾸준히 오를 수 있지만 건양대 의학과에 합격한 김○○ 학생처럼 6월 모평 이후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9월 모평에서 떨어지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2021 수능이기 때문에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짜 실력을 쌓는 것에 집중하여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 교대 합격** | 2020학년도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 정시 합격자 백분위 성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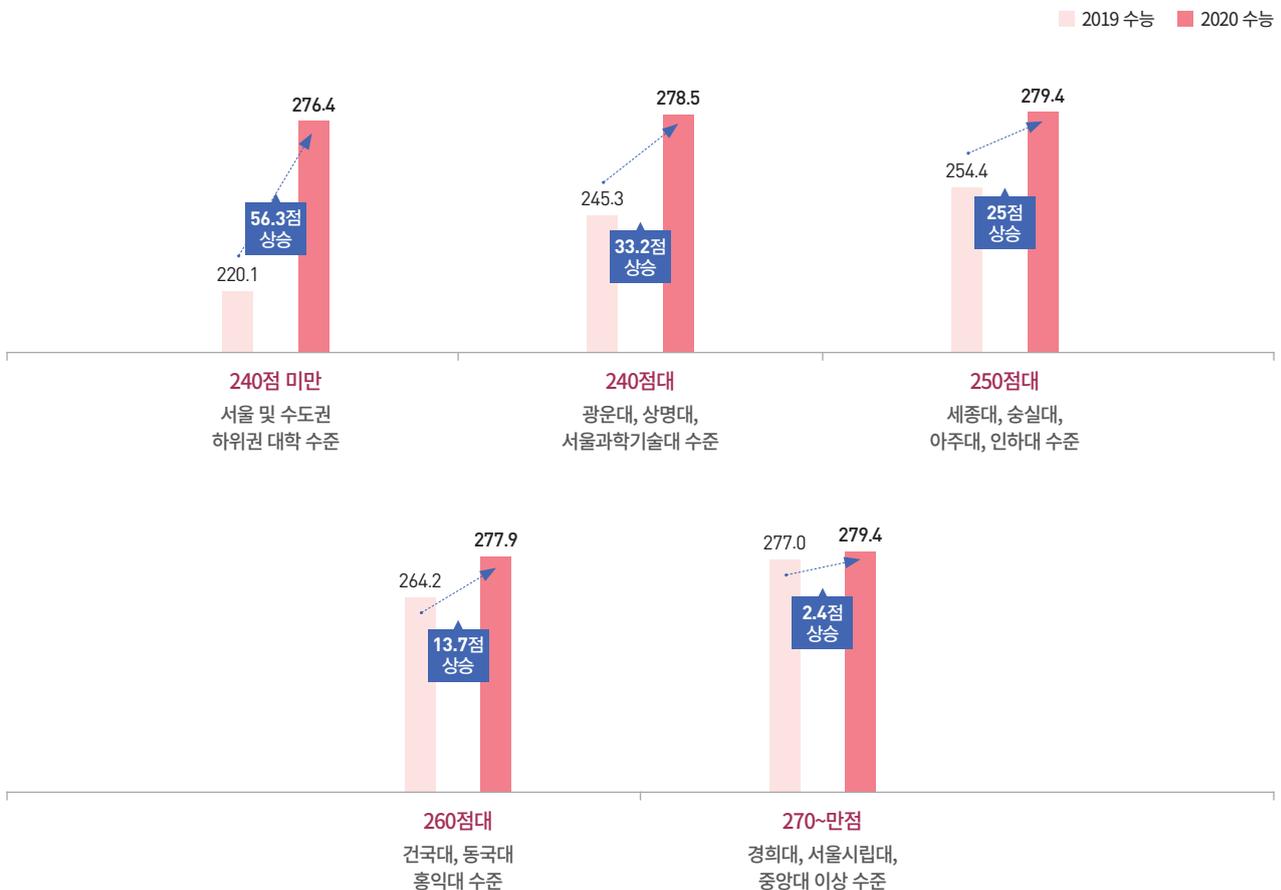
**1 점수대별 분포**

지난해 메가스터디 재원생 중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연고를 제외한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입학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수능 국수탐(2) 백분위 합 240점 미만인 수험생들이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백분위 합 240점 미만이면 IN서울 진학이 어려운 성적인데 재수를 한 뒤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성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입학 성적이 240점대 수험생들도 21.2%로 많았는데 광운대, 상명대 등 서울 중하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1년 더 노력하여 다수가 270점 이상을 받아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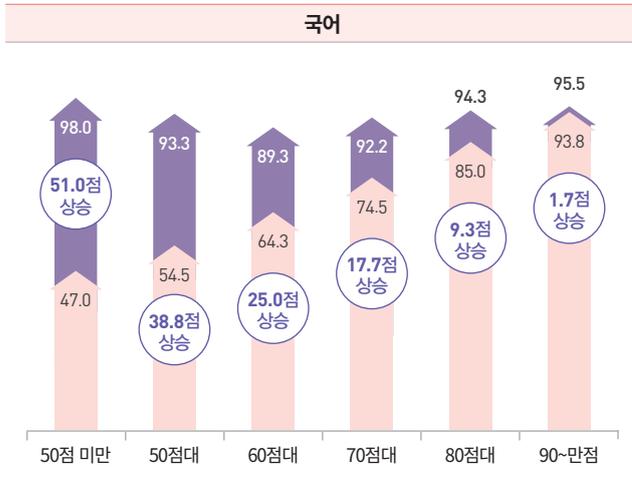
**2 평균 점수 상승폭 :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최상위권 대학 합격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입학 성적 240점대 미만 수험생들은 무려 56.3점이나 상승하여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276.4점을 기록했다. 입학 성적 240점대의 수험생도 평균 33.2점 상승하였다. 입학 성적이 270점대 이상의 수험생 또한 평균 2.4점 상승하였다. 입학 성적(2019 수능)이 높은 수험생들은 시작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수대보다도 철저하게 수능 성적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맞힌 문제도 정말 실력으로 풀었는지 등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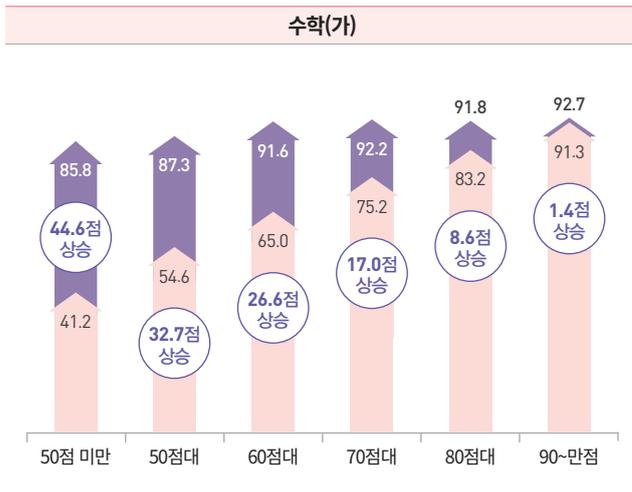
### 3 영역별 점수 상승폭 : 국어, 수학(가), 과탐(2)

■ 2019 수능 ■ 2020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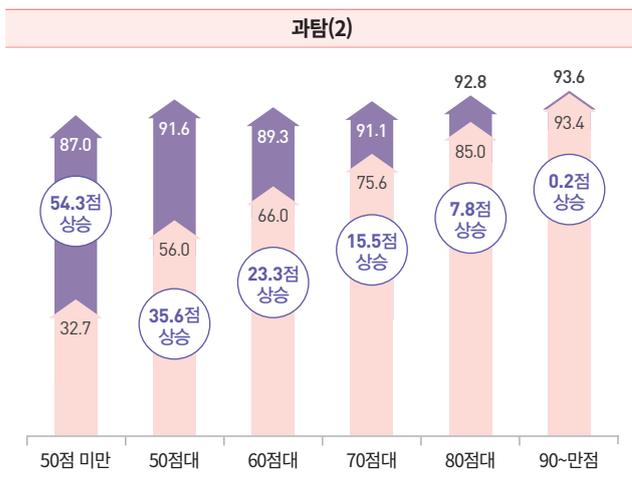
성균관대, 한양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재정부 수험생들의 수능 영역별 점수 상승폭을 살펴보면 SKY에 합격한 수험생들처럼 국어 영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어에서 2019 수능 성적이 50점 미만으로 가장 낮았던 수험생들의 성적이 2020 수능에서 평균 98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어는 1교시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수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재정부에서는 매달 모의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작년 재정부 수험생들의 성적 상승 결과를 통해 자신도 그렇게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멘탈까지 관리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입학 당시 50점 미만의 수험생들이 2020 수능에서 44.6점이 상승하여 평균 85.8점을 받았고, 50점대 수험생도 2020 수능에서 32.7점 상승하여 평균 87.3점을 받았다. 또한 입학 성적이 60점 이상의 수험생들은 2020학년도 수능에서 평균 90점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최근 수능 수학 출제 경향은 고난도 문항이 다소 쉽게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나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점수대에 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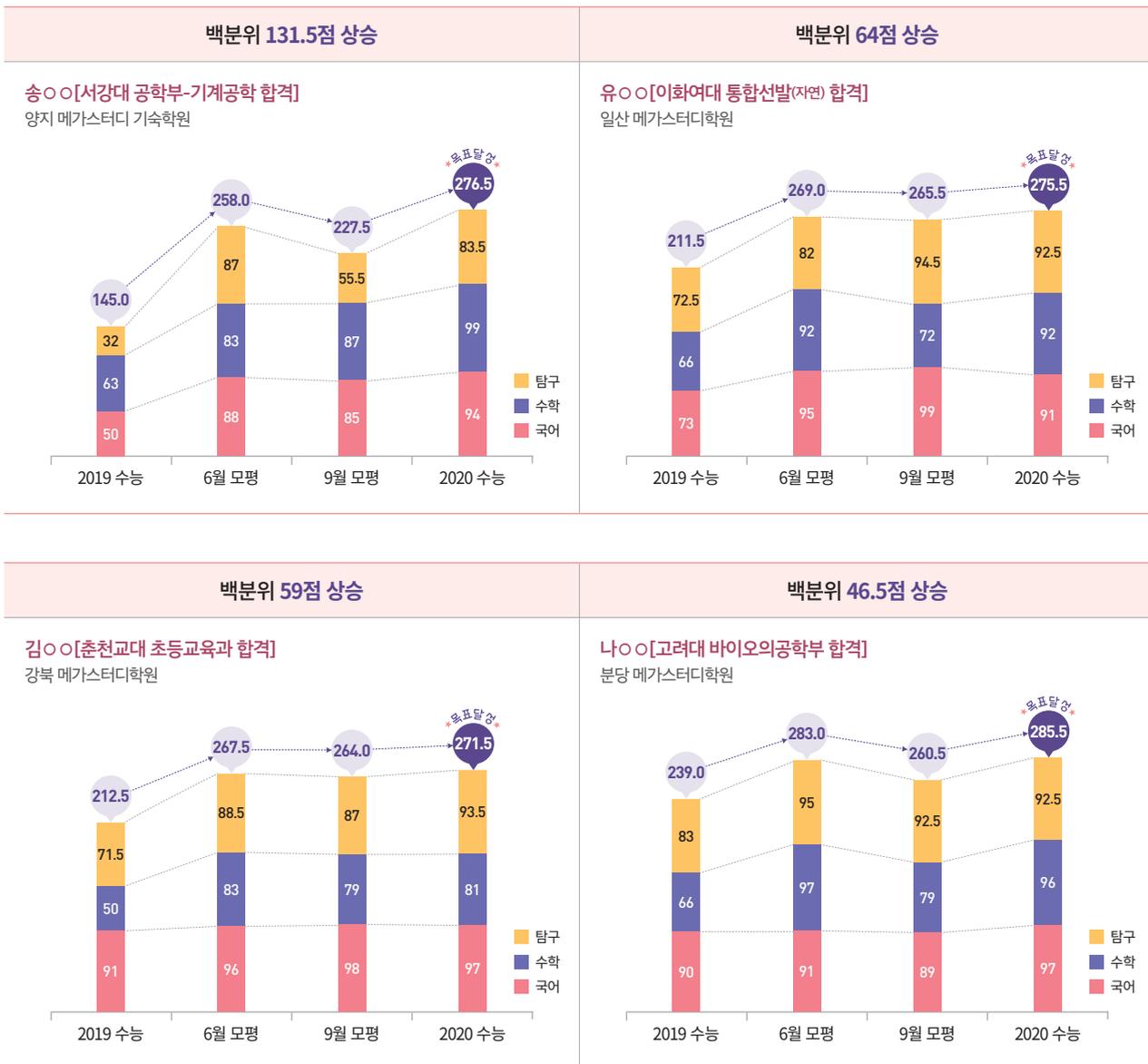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입학 성적(2019 수능)이 50점 미만으로 가장 낮았던 수험생들의 성적이 2020 수능에서는 평균 87점을 기록하여 무려 54.3점이나 상승했고, 50점대 수험생들도 35.6점이 상승하여 평균 91.6점을 기록했다.

앞서 SKY에 합격한 수험생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탐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노력에 따른 결과가 바로 성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따라서 지난해 성적이 낮았던 수험생들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상승폭이 큰 사례

앞서 살펴본 SKY 그룹의 합격 사례처럼 성적 향상을 크게 한 수험생의 대부분은 6월 모평에서 비약적인 성적 향상의 경험을 한다. 국수탐(2) 백분위 합이 2019 수능 대비 131.5점 상승하여 서강대 공학부-기계공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도 6월 모평에서 성적이 2019 수능보다 무려 113점이나 상승했다. 따라서 6월 모평까지 몇 점을 올려야겠다는 큰 계획을 세운 뒤,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매달 실시하는 모의고사에서는 몇 점씩 올리면 되는지 역으로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지난해 수능 성적을 국수탐(2) 백분위 합 220점 받은 수험생이라면 6월까지 280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5월 모의고사에서 265점, 4월 모의고사는 250점, 3월 모의고사는 235점 이상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매달 15점씩 상승한다고 한다면 각 영역별로 매달 5점씩 상승해야겠다는 목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수를 쪼개면 한 번에 60점 올려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성취감도



**참고** | 그밖에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의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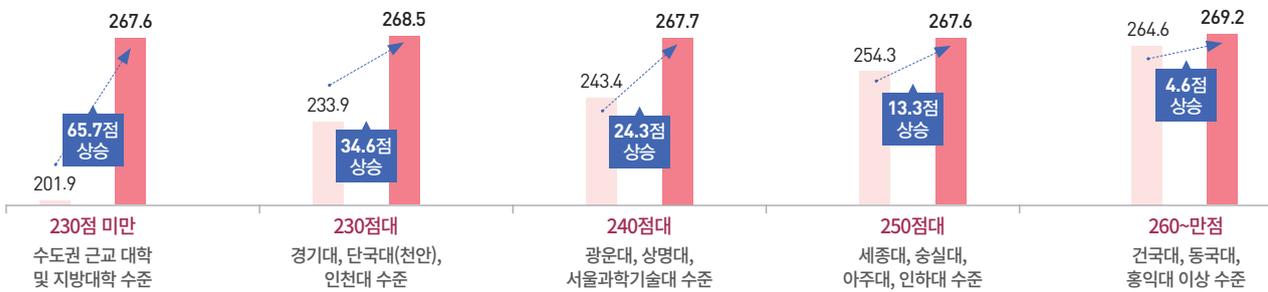
▶ **경희대, 서울시립대에 합격한 수험생의 점수 상승폭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성적]**

2019 수능 2020 수능



▶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에 합격한 수험생의 점수 상승폭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성적]**

2019 수능 2020 수능



**영역별 학습 TIP** | *티플 장학생이 말하는 수 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 영역**

• **국어 시험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면?**

국어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은 화법과작문과 문헌입니다. 화법과작문의 경우 평가원 기출의 선지와 유형을 분석해 비슷한 선지나 유형이 나올 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1세트씩 풀어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문학의 경우 수능특강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 연계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문학은 다급하게 풀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비문학 지문을 정해진 방식대로 읽는 연습을 통해 수능에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 김보민 | 경희대 한의예과(인문) 합격

• **열심히 공부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국어는 시간과 성적이 비례해서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약한 문법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하원 후 집에서 20분간 문법 5문제 풀기, 5문제 복습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였고 수능국어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공부는 학원에서 전부 마치고 집안의 책상에는 1년 내내 국어 문제집 한권과 필기구 한 자루만 놓여있으면 이 과제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어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강도 단기 집중학습이 아닌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준 |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합격

**수학 영역**

• **수학 성적이 낮는데 과연 수능 때까지 올릴 수 있을까?**

유독 수학 과목에 취약했던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마주하는 매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막힘없이 잘 푸는데 저만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친구들은 모의고사 21번 문제의 답을 비교하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에 손도 대지 못했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혼자만 이해하지 못할 때, 며칠 전에 풀었던 건데 다시 풀어보니 모르겠을 때 자책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플래너에 '모르면 다시 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하면 된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모두 활용하여 선생님께 문제의 모르는 부분을 몇 번이고 계속 여쭙어보았습니다. '복습만이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문제일지라도 완전히 알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고 다시 풀면서 수학에 대한 막막함을 천천히 극복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 수학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차피 난 못 풀거야'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도 생겼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 조성아 | 연세대 행정학과 합격

### • 수학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 방법이 있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일일 30제 노트를 사용하여 매일 문제를 푸는 양을 확인해 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마다 넘버링을 해가면서 매일 풀 문제 수를 확인했습니다. 노트에 문제를 풀고 채점은 문제집에 하며 어려웠던 문제나 실수했던 문제는 꼭 표시해두고 세 번, 네 번씩 풀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매번 그냥 넘어가니 실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강사들의 조언을 토대로 실수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 실수한 내용을 노트에 세세히 정리하면서 실수를 머리에 각인시켰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는 내가 자주 실수하는 계산이 나온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실수를 줄였습니다. 수학 역시 기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기보다 기출에서 자주 나온, 앞으로 꼭 나올만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익히는 공부를 한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a href="#">장규빈 | 전북대 치의예과 합격

## 영어 영역

### • 절대평가로 소홀히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1등급이 아닌 100점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문제집을 풀 생각하지 말고 EBS 교재를 적어도 3회독해야 합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① 모르는 단어 없도록 수능 영단어집 매일매일 외우기, ② 지문에 있는 모든 문법 포인트 생각하며 N회독하기, ③ 글의 첫머리만 봐도 내용이 다 기억나게 정리하기, 이 정도만 해도 실력 향상 무조건 보장하고 실전에서 연계된 지문 3초컷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연계율 70퍼센트인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끈질기게 매달리세요. < a href="#">오주은 |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

저는 하루에 영어 공부 시간을 정해 두고, 이 시간에 주로 EBS 영어 지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이 지문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EBS 영어 지문을 차근차근 학습하면서, 그 중 주제나 소재, 글의 짜임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문들과 학원 선생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지문들에 제가 직접 빈칸추론이나 순서, 삽입 등의 문제를 만들어 보며 학습하였습니다. < a href="#">박재웅 | 대전대 한의예과(인문) 합격

영어는 수능특강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특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는데, 저는 영어 또한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특강은 내용을 파악하고, 지문 구조도를 통해 낯선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연습하는 데 보았고, 기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오답선지를 내는지 파악했습니다. 또한 모르는 단어는 예문과 함께 적어두어서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단어가 쓰이는 지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지문 속에 그 단어가 있어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 a href="#">양희수 | 경상대 의예과 합격

## 과학탐구 영역

### • 1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뀔 수 있는데 완벽하게 공부하는 비법이 있는지?

과학의 경우 저만의 '지엽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엽노트란 과학탐구 과목 중 암기해야 할 단원 중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모아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리/생명과학을 선택하여 외우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외워야 풀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지엽노트를 사용할 경우 애매하게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암기부분을 적어놓아 한눈에 알 수 있어 다음에는 절대 그 부분을 틀리지 않게 됩니다. < a href="#">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 과학탐구 과목은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지엽노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즉 출제자가 주는 문제라고 하는 쉬운 문제 등은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 a href="#">최인혁 |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합격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경우 킬러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 때 킬러 문항에는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비킬러 문항은 7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실전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비킬러 문항은 주로 개념문제인데 요즘은 지엽적인 내용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EBS와 그동안의 기출문제에 나온 지엽적인 내용과 선지들은 손바닥 크기의 공책에 적어서 매일 한 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내용을 다 읽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단축되어 나중에는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수능을 보기 직전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 a href="#">나지혜 |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합격

화학의 경우 개념과 자신만의 풀이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공부하며 쉬운 문제에 더듬더듬 적용하는 연습을 했고, 점점 실력이 늘면서 직관적인 풀이와 논리적인 풀이를 함께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만의 문제풀이 매뉴얼과 실수코드를 적어두고 계속해서 보완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는데, 문제의 질을 등한시할 수 없기에 저는 같은 기출문제집 세 권을 구입해 반복해 풀었고, 시험지 형식의 기출문제를 인쇄해 시간을 재며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재료로 공부했고, 나중에는 기출문제의 기초와 문제 스타일을 반복해 익히며 수능 당일 낯설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 a href="#">서다경 | 울산대 의예과 합격